

Supplementary material 2. 지속체위지각어지럼(persistent postural-perceptual dizziness, PPPD)의 진단기준
(Bárány Society, 2017 [13]) [24]

다음의 5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

- (1) 어지럼(dizziness), 자세불안(unsteadiness), 비회전현훈(non-spinning vertigo) 중 하나 이상의 증상이 3개월 이상 존재한다.
 - ① 증상은 보통 수 시간 이상 지속되지만, 증상의 심각도는 일정하지 않을 수 있다
 - ② 증상이 반드시 온종일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
- (2) 특정한 유발 요인 없이 계속 주요증상이 존재하는데, 다음 세 가지 요인들에 의해 주요증상이 악화된다.
 - ① 서 있는 자세
 - ② 특정 방향이나 자세와 무관한 능동/수동 동작이 있을 때
 - ③ 움직이는 시각 자극이나 복잡한 시각 패턴에 노출되었을 때
- (3) PPPD가 발생하기 전에 현훈이나 자세불안, 어지럼 및 균형 문제를 야기하는 다양한 전정증후군이 선행한다. 전정 증후군뿐 아니라 다른 신경학적 또는 내과적 질환이나 심리적 스트레스도 PPPD의 선행 사건(precipitants)일 수 있다.
 - ① 만일 선행 사건이 급성(acute)이나 삽화상(episodic)이라면, 선행 사건이 해소될 때 PPPD의 특징적인 주요증상이 시작될 수 있다. 이때 초기는 주요증상이 간헐적으로 발생했다가 이후 증상이 고착되어 계속되는 경과를 보일 수 있다
 - ② 만일 선행 사건이 만성(chronic) 증후군이라면, 처음에는 증상이 천천히 발생했다가 점진적으로 나빠질 수 있다
- (4) 증상이 임상적으로 유의한 문제와 기능 저하를 초래한다.
- (5) 증상이 다른 질병이나 질환에 의해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.